

피자와 에스프레소, 로마를 추억하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몇주 사이에 로마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그 많던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콜로세움 앞에는 드문드문 마스크를 쓴 행인들뿐이었다. 지난 2월 초 여행한 로마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평화롭고 로맨틱한 도시였는데, 코로나19가 덮친 로마의 사진은 스산한 느낌마저 준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얻은 행복한 기억을 바이러스가 지울 수는 없다.

‘내가 가본 로마’를 추억해본다.

글·사진 정동현





1 하늘에서 내려다본 로마 외곽
2 로마 콰트로 폰타네 언덕길



2

어릴 적 신문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오로지 영화 '로마의 휴일'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상형은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처럼 짧은 헤어스타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로마에서의 휴일'을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휴가를 내고 여행 가방을 꾸렸다.

거리의 가로수에는 오렌지가 달려 있고
월계수가 높아서 있는 나라.
집 안에는 대리석으로 번쩍이며, 석상이 즐비한
그 나라를 아시나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생활의 권태를 떨치고 시인의 정신을 되찾고자 떠난 비밀여행지에 도착해 지은 시다. 시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에서 괴테가 감탄한 그곳, 이탈리아로 떠났다. 기내식을 두 번 먹고, 영화를 세 편 보고서야 그곳에 도착했다.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이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감싼다. 하늘은 눈부시게 매혹적이다. 대지에 펼쳐진 풍경은 햇빛에 반짝인다. 푸른 하늘과 지중해 바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의 상징색 '푸름'을 이곳에선 '아주리'(Azzurri)라 부른다.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을 '아주리군단'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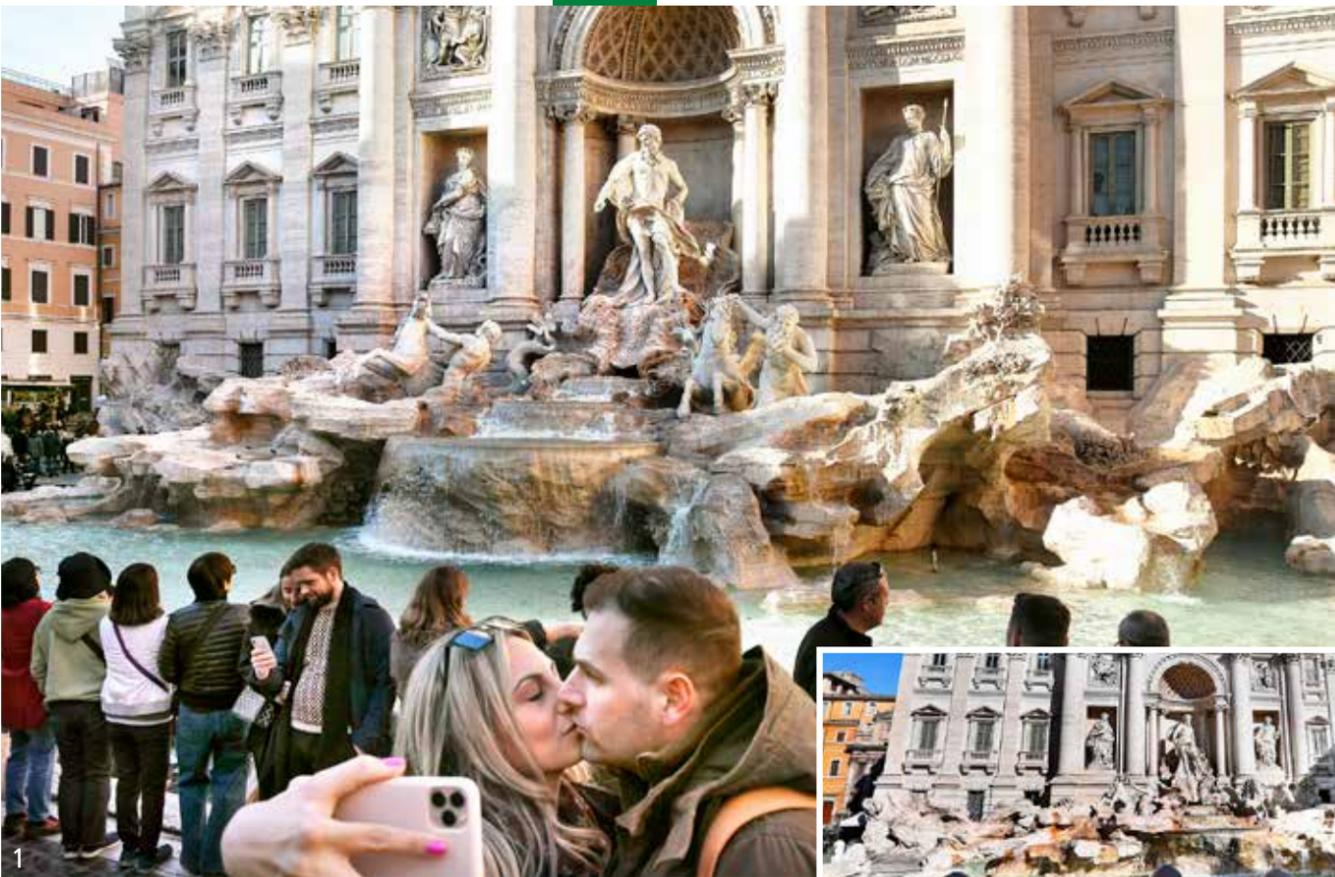


4



3 초대 이탈리아 국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마상
4 통일기념관 앞에서 관광객을 기다리는 마차

'얼마나 멋진 햇볕인가. 폭풍우는 지나가고 하늘은 맑고 상쾌한 바람에 축제처럼 햇빛이 비쳐온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던 칸초네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흥얼거린다.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힐끗 쳐다보지만, 어찌란 말인가. 로마의 영웅들과 르네상스 천재들을 만난다는 흥분된 마음은 누를 길이 없다. 로마의 길은 지형이 허락하는 한 직진이다. 로마로 향하는 길인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로마는 서양문명의 중심이었다. 간선도로 8만km의 길을 닦아 네트워크화한 것은 로마제국의 시작이다. 마치 인간의 육체에 혈관이란 길을 통해 피가 전해져 생명을 유지하듯이, 점령한 지역마다 성당을 지어 종교를 통한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 감히 넘볼 수 없는 제국의 힘을 과시했다. 괴테가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로마로 들어온 것처럼 북쪽 관문 포폴로 광장을 지나 콰트로 폰타네 언덕



1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곳, 트레비 분수
 2 이탈리아 로마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관광명소인 트레비 분수를 폐쇄한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주변이 쓸쓸하다.
 3 청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즐기는 현지인



2 EPA 연합뉴스



3

길을 걷는다. 거리 양옆으로 건물들의 창문은 신전 건축양식으로 디자인하고 예쁜 색을 입혔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모든 축복은 창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도시 로마에서 예쁜 창문들이 있는 건물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다.

커피 향에 이끌려 한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소란스럽다. 삼삼오오 서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한잔에 1.5유로. 양중맛은 커피잔에 담긴 커피 향은 진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에스프레소 사랑은 대단하다. '물 탄 커피' 아메리카노는 커피의 맛을 손상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설탕을 조금 넣어 스푼으로 휘저어 녹이지 않고 천천히 세 번에 나눠 마신다. 첫맛은 쓰고, 두 번째는 고소하고, 세 번째 맛은 달달하다. 한 잔의 에스프레소로도 인생의 3가지 맛을 즐긴다.

늦은 오전, 로마의 식당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영업을 늦게 시작하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기 때문이다. 게으르다는 인식은 여행자의 오해다. 늦장을 부리는 게 아니다. 달콤한 인생을 즐기

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는 것이다.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국가였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 로마인들은 거대한 도시에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를 트고 300여개에 달하는 분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다. 2천300년 전 로마는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계의 심장이 된 로마 문명이다.

로마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분수는 트레비 분수다. 분수 안쪽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가 트리톤이 모는 마차에 올라타고 있다. 좌우에는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의 석상이 우뚝 서 이 분수가 로마 최고의 걸작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들의 석상 아래 역동적으로 조각된 말들은 금방이라도 분수대 물을 박차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뛰어나올 것만 같다.

연인들은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뜨거운 키스를 한다. 트레비 분수의 계단은 모든 연인의 사랑의 무대다. 이 분수는 로마의 한 처녀가 목마른 로마 병사에게 시원한 물이 솟는 작은 샘을 알려줬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분수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이다. 트레비 분수에서 갈끔한 배경의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 같이 간 가이드는 사람 많은 곳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래도 로마에 다시



4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토를 먹고 있다. 젤라토는 유지방과 공기함유량이 적어 맛이 진하고 쫄득하다.
 5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5



1

오고 싶다는 뜻으로 트레비 분수를 등지고 어깨 너머 동전 하나를 뒤로 향해 던졌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대 로마가 시작된 팔라티노 언덕과 캄피돌리오 언덕 사이 로마의 심장부였던 포로 로마노에서 로마의 영웅들을 만났다. 황제와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승리의 길을 걸으며 공화정을 사수하려던 키케로의 죽음을 생각했다. 줄리어스 시저의 동상 앞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동상을 바라보며 “로마에 왔노라 보았노라”라고 외치며 확인받고 싶어 하는 표정들이다.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시저의 말이 떠올랐다. 로마 여행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로마제국의 상징적 건축물인 콜로세움은 벽돌을 쌓아 전체적으로는 로마식 아치형과 그리스 기둥 양식이 결합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원형경기장에서 피 튀는 검투사들의 구경거리를 위한 시민들의 인기엔 영합한 건축물이지만, 5만5천명의 관중이 15분 만에 퇴장 할 수 있게 설계된, 로마건축의 기적이기도 하다. 지금은 3분의 1만 남아 있는 것이 아쉽다. 콜로세움 앞에 서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했다.

로마에서 매일 피자를 먹었다. 밀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얇게 만든 밀가루 반죽에 토핑을 얹어 장작 화덕에서 노릇노릇 구워낸다. 처음 맛보는 담백함과 바삭한 맛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1889년 나폴리를 방문한 마르게리타 왕비를 위해 만든 피자는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3색으로 만들었다. 모차

렐라 치즈는 하얀색, 토마토소스는 빨간색, 그리고 바질로 초록색을 표현했다. 길거리 음식이던 피자가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음식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탈리아 피자 장인을 의미하는 피자이올로(pizzaiolo)는 유네스코에 보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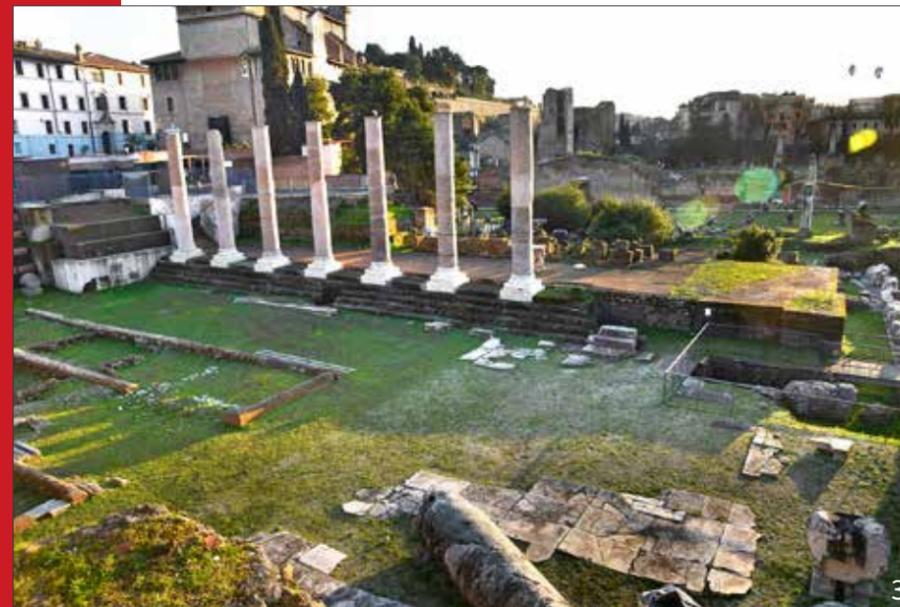
로마 사람들은 만자레(Mangiare, 먹고), 칸타레(Cantare, 노래하고), 그리고 아마레(Amare, 사랑하고)를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 로마를 여행하면서 피자를 먹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칸초네를 노래했다. Roma(로마)를 거꾸로 읽으면 Amor(사랑)이 된다. 여행하는 며칠 사이 로마를 사랑하게 되는 로마병에 걸렸다. 로마는 지금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에 퍼진 바이러스는 로마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 인류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고 나는 다시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을 것이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진 이유를 믿기에... ❶



2

1 2천여년 전에 지어진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2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또다른 로마황제이던 막센티우스를 격파한 것을 기념해 만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3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바라본 포로 로마노
4 시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카이사르의 동상

April 2020



3



4